

# 광주시 내달 국감 ... 지진·안전·일자리 이슈

## 안행위 자료요청 107건 중 18% 지진·안전문제

### 1군 발암물질 최다 배출·운시장 인척 구속 쟁점

경주 지진으로 인한 공포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광주시 국정감사도 지진과 안전 문제에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오는 10월10일에 있을 국정감사에서는 지진발생 및 원자력발전소 사고대비, 취약 시설 안전상태,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현황 등 주로 안전 관리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시철도의 안전문제, 광주지역 업체에서 발생한 1군 발암물질의 전국 최다 배출 문제와 운장현 시장

인척 구속 사태 등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는 10월10일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107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최근 경주에서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반영한 듯 국회의원들은 지진과 안전에 관련된 자료 요구가 가장 많았다. 107건 중 19건(18%)이나 된다.

의원들은 신축 건물의 내진 현황, 지진 발생 대비 대책, 원자력발전소 사고 대비 소방 활동 대응 매뉴얼, 비상대피시설 현황, 시도별 재난관리대책,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현황, 최근 시도안전관리계획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또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현황, 학교 주변 환경진단 안전점검, 특별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시도별 재난안전조직 개편 현황 등도 요구했다. 청년고용 등 일자리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그 뒤를 이었다.

의원들은 청년고용대책과 창업지원 현황, 청년취업 관련 행사, 일자리 창출사업 결과 보고, 관공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

간제·무기계약직 현황 등도 요청했다. 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반남 내역,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평가 결과, 재향군인회와 재향군인회 등 5개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지급 내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읍주 상태 구급차 운전 사건이나 최근 5년 간 기상청 오보로 인한 행사 취소사례, 최근 5년 간 시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현황, 기후변화 및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대응 방안, 통일시대 대비 대책, 청와대와 국회, 사법부 등 기관 대상 명절 선물 예산 내역 등도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이 22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토르시장 접견실에서 바트벌드 손두이(Batbold Sundui) 울란바토르 시장과 만나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낙연 전남지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세일럼시 오리건주청사에서 케이트 브라운(Kate Brown) 오리건주지사과 회담, 신재생에너지와 농업·산림산업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비망록에 서명했다. <전남도 제공>

## 광주시, 몽골과 교류·협력 물꼬 텃다

### 운시장-울란바토르 시장 우호협정 체결

광주시가 몽골과의 교류·협력의 물꼬를 텃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현지시간으로 22일 오전 11시 몽골 울란바토르시장 접견실에서 바트벌드 손두이(Batbold Sundui) 울란바토르 시장과 만나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두 도시는 평등을 존중하며 관광, 교육, 의료, 문화,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협력관계를 공식적으로 확고히 하는 한편, 상호 공식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자 교육 및 교류분야 활성화와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진행됐던 교류사업들을 행정단위로 확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교류협력의 기반을 닦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

윤 시장은 “미래를 위한 의미있는 발걸

음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특히, 울란바토르시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의료교류에 대해 신기술을 전수하고 의료인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바트벌드 손두이 시장은 “우리는 모든 나라에 열려 있는 도시다. 아시아 많은 국가들과도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의 선진의료기술을 비롯해 문화도시 광주와 앞으로 함께 할 일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또 이 자리에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소개, 교류 확대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이와 함께, 울란바토르시가 최근 신설한 청년개발청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광주세계청년축제를 몽골 청년들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

## 전남도, 美 오리건주와 친환경농업 협력

### 이지사 방미 관광·문화교류 활성화 공조

전남도와 미국 오리건주가 친환경농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부문에서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21일(현지시간) 오리건주 정부 청사에서 케이트 브라운 오리건주지사과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양측은 친환경농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각 부문의 협력 증진을 위해 양측간 기관교류 및 연구·개발·정보공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남도의 육성산업 중 하나인 관광·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책 및 정보공유하기로 하는 한편, 민간부문 교류도 활성화하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오리건주에서 약 6만명의 군인이 한국전쟁에 참전해 298명이 전사 또

는 실종됐다”면서 “오리건주에 살던 해리 홀트는 한국전쟁 고아의 참상을 알고 부인과 함께 홀트 아동복지 재단을 운영하며 6만6000명을 새 가정에 입양시켰다”고 한국과 오리건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경의를 표했다.

이 지사는 오리건주의 대표적 생태 숲인 ‘리디스커버리 포레스트’를 방문해 잣나무 녹병과 소나무재선충 등 병해충의 예방·관리 방안 및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산림 수종 개발 대책 등을 현장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4면 발행·호심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 롯데쇼핑 사회환원금 130억원

### 청소년·소외계층 지원 가능성

#### 市 시민협의체 회의서 제시

#### 광주FC 지원은 어려울 듯

대형 마트 매장의 무단 전대(轉貸·제임대)와 관련해 롯데쇼핑이 내기로 한 사회환원금은 청소년과 소외계층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성 경영난에 시달리는 시민 축구단 광주FC에 지원되길 바라는 체육계 일각의 바람은 수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롯데쇼핑의 환원 방침 이후 해당 업무가 체육진흥과로 넘어가면서 시 안팎에서는 환원금이 축구단 또는 생활체육 지원 등 체육분야에 쓰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롯데시 관계자는 “축구단 지원 방안 내부적으로는 검토됐지만 시 일반 예산 편성으로 해결해야 할 곳에 환원금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롯데측이 내놓는 환원금은 시민이 내고 있는 세금과 같은 것으로 환원의 의미를 살리고,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협의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다음 회의부터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을 추가해 시민에게 유용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롯데쇼핑은 2007년부터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던 중 무단 전대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시민사과와 함께 앞으로 10년간 총 130억원을 환원하기로 시와 약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롯데쇼핑 사회환원금 130억원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시민협의체는 지난 21일 첫 회의를 열었다.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환원 시기, 방법, 활용처 등을 논의했다.

활용방안으로는 학교 밖 위기청소년 지원, 국내외 공익·공헌활동 지원,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 청소년 장학사업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광주FC를 지원하는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민준 전남도의원,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힘 보태

#### 나주 다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60억 확보

전남도의회 이민준(나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내년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공모에서 나주 다시면이 선정돼 사업비 60억원을 최종 확보하게 됐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읍·면의 중심 기능 회복을 위해 기초생활 기반과 지역경관 정비, 복지회관 리모델링, 전통시장 정비, 희망 도서관 조성 등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민준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이 향

후 나주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젊은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도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역할을 다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도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안기홍 원장 취임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제5대 원장에 안기홍(59) 전 전남도 세계친환경디자인 박람회 사무국장이 22일 취임했다.

신임 안 원장은 이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6개 연구센터(식품산업·의약산업·천연자원·해양바이오·나노바이오·생물방제)를 새로운 융복합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전남의 미래산업을 견인하는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 1981년 공직에 입문한 뒤 전남도 주요 부서를 거쳤으며, 지난 2014년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재직 당시 분석장비 구축(80억 원) 및 연구인력 확충 등 자립경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기관 연착륙에 공헌하기도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남구 진월, 효천지구 1만세대 신도심 핵심상권의 중심지

SH SH BUILDING

스케일이 다른 가치는 투자자의 특권이 됩니다!

- 남구 빚고울CC, 노인건강타운과 대규모 아파트가 연계된 중심지 **우월한 입지**
- 삼면이 확보된 최고의 조망권 및 노출광고가 확실한 상가 **투자가치**
- 고소득 직군의 인적 유입 및 소비증대로 수익증가 **미래가치**
- 어느 누구도, 앞으로 제시할 수 없는 위치대비 합리적 분양가 **고객가치**

현장 SH SH BUILDING

충천내 천년나무APT LH행복주택 빚고울CC 노인건강타운 빚고울전남대병원 진월지구

성황리 분양중

시행 성희개발(주) 시공 한아종합건설(주) 설계·감리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중

문의 062) 676-4006

010-5681-4015

\* 본 이미지는 소위(사)의 이미지를 등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